



The 35th Annual Scientific Meeting and Reunion

The Westin Atlanta Gwinnett, Atlanta
September 25-28,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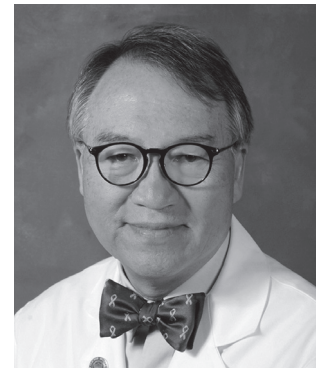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SEVERANCE ALUMNI ASSOCIATION NEWS

26 Wimbledon Drive, Roslyn, NY 11576
T: 516.655.0088
E-mail: severanceusa1@gmail.com

발행인 : 박용덕 | 편집인 : 박훈재

제35회 세브란스 동창회 학술대회 및 재상봉 행사를 마치며



박용덕 (1976)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장



애틀랜타의 가을 하늘 아래, 약 150명의 세브란스 동창들이 3박 4일 동안 모여 웃음과 감동, 그리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만의 만남은 반가움으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끝났지만,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 첫날 - “오랜만입니다!”

행사의 첫날 저녁,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 둘씩 모여 듭니다.

1년 만에 만난 반가움이 곳곳에서 웃음소리로 터져 나왔고, 저녁 식탁 위에는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건강은 어떠세요?” 서로 안부를 묻는 그 따뜻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동창이라는 이름 아래 한 가족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 둘째 날 - 푸른 하늘 아래, 추억을 쌓다

이른 아침, 아직 어스름이 남은 새벽 6시 30분.

28명의 동문들이 St. Marlo Golf Club으로 향했고, 7시 30분에는 65명의 관광팀이 Anna Ruby Falls와 Helen으로 출발했습니다.

혹시나 비가 올까 미리 준비한 판초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부터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동창들을 함께 추모하며,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본교에서 오신 금기창 의료원장님, 최재영 의대 학장님, 김장영 원주의대 학장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서 학교의 근황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의대 신축 소식은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병원 강훈철 병원장님의 한국 아동치료의 역사를 재미있는 각도로 들었으며,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송선규 기념강의는 윤영섭 동문(1989)의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심혈관 재생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선구적인 내용을 나누며, 동창들의 자부심과 격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 셋째 날 - 배움과 감동의 시간

올해 새 출발하신 이재범 총동창회장(1988)이 앞으로의 비전과 사역을 전했습니다.

윤인배 기념강의에서는 김계영 동문(1976)이 “Loss, Death, and Loneliness in Old Age”라는 주제로 노년의 삶을 깊이 있게 다루었고, 홍완기 기념강의에서는 신동문 동문(1975)이 고 홍완기 동창의 연구를 잇는 암 정복 연구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외부 연사로는 MCG (Medical College of Georgia) 신경과 과장이신 Dr. Jeffrey Switzer가 “Past, Present, and Future of Antithrombotic Therapy in Stroke Prevention”를, Emory의 Dr. Anant Madabhushi가 “Applications of AI to Precision Medicine”을 주제로 강연해 동창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진행된 Parallel session에서는 홍지수 동문(2001)의 부인 임수진 작가가 “진짜 내 애기로 에세이 쓰기”를, 박희명 동문(1963)이 “Cosmos”를 주제로 나눴으며, ‘Line Dance’ 시간에는 모두가 하나 되어 웃음과 박수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 Gala Night - 사랑과 웃음으로 하나된 밤

마지막 밤의 Gala Party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1부에서는 이재범 총동창회장이 따뜻한 인사말을 전했고, 작년 LA 학회를 섬긴 오홍길 동문(1970)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고 김흥기 동문(1964, 30회 연세의학대상 봉사 부문 수상자)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부는 “연세여 사랑한다”라는 영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골프 시상식에서는 연고전 5 strokes으로 승리 소식이 전해져 큰 환호가 터졌고, 참석한 동문들의 성함이 한 명씩 호명되어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가장 많이 참석하신 동기는 69년 졸업 동기 10분을

비롯해, 65년 9분, 66년과 72년은 8분 동창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특히 결혼 56주년을 맞은 이인에 동문(1966)에게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고, 졸업 60주년을 맞은 허일무 동문과 허영자 사모가 부른 “여정”은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후 이어진 첼로·색소폰·피아노 삼중주의 아름다운 연주와 조수현 사모(송남수 동문 73)의 “그리운 금강산”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이긴 사람만 남는 가위바위보”와 “A.P.T. Dance”로 모두가 웃고 춤추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행사 후 꽃과 스파클러를 들고 찍은 단체사진은 그날의 행복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 주일 예배 - 은혜로 마무리하다

마지막 날, 주일 아침.

윤영섭 목사(1989)가 “God’s Providence, Calling, and Mission”이라는 keywords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윤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일깨웠습니다.

애틀랜타 동창들의 특송 “은혜”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모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되새기었습니다.

이날의 헌금은 Kingdom of Eswatini에서 사역 중인 용태순 동문(1983) 선교사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이번 애틀랜타모임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세월과 공간을 넘어 하나로 이어진 세브란스 가족의 축제였습니다.

함께 웃고, 배우고, 기도하며 우리 모두는 다시금 “세브란스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동문과 사모님들, 서울 본교와 행정실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매년 헌신하시는 SAA의 이선헌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2026년 펜실베이니아로 향합니다.

그날, 또 한 번의 만남을 기대하며 애틀랜타의 추억을 마음 깊이 간직합니다.

향긋한 커피향에 실어 올려드리는 감사 고백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이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서 일하고 계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멋진 솜씨를 함께 나누고저 합니다.



오혜경 (1979) 동문

▶ 장소 예비하심



처음 호텔을 찾아갔을 때는 문을 연 지 며칠 안 되는 때였습니다. 신축 건물이어서 시설이 깨끗하고, 회의와 연회에 딱 맞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너무 좋았지만 조금은 황량한 주변 풍경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곳이 과연 내년까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걱정과 기대 속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은 이 호텔이 애틀랜타에서 가장 사랑받는 호텔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며 당시 우리가 받은 그 특별한 가격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계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호텔 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하던 한국 도시락과 빵, 차를 break time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을 때 그 배려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 음식의 기쁨



“이번엔 정말 배가 호강한 모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 때마다 웃음이 오갔고, 풍성한 교제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음식 선정과 가격 조율, 배달까지 세심하게 책임져 주신 김명호 선배님, 김공근 사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학술적 나눔의 만족



Scientific Session과 Parallel Session은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짜임새 있는 주제와 깊이 있는 발표로 지식을 나누고 새롭게 충전될 수 있었습니다. 진행해 주신 신동문 선배님, 최형주 선생님, 김상애 선생님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 골프의 즐거움과 연고전 승리



애틀랜타 지역 연고전까지 겹친 큰 행사였지만 장덕규 선배님의 열성적인 섬김 덕분에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연고전의 승리 소식은 모두에게 큰 기쁨을 더해 주었습니다.

▶ 관광의 은혜



비 소식이 있어 조금 걱정했었지만, 부족함 없는 날씨로 응답되었습니다.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 유럽풍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오는 햇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소로 맞이하시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커다란 돌산을 케이블카로 올라가 바라본 장관, 그리고 마틴 루터 킹 기념관에서의 깊은 감동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몸에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짜 주셔서 고맙습니다.”하신 선배님의 말씀이 맘에 따스이 와 닿았습니다.

전문 안내인으로 오인 받을 정도로 관광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 조수현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환영 파티의 반가움



첫날의 Welcome Party는 정말 큰 축제였습니다. 곳곳에서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칭찬 속에 서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과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 갈라 파티의 기쁨



Gala Party의 밤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정성으로 준비된 프로그램, 그리고 함께 웃고 춤추고 노래하던 그 시간들.. 특히 허일무 선배님, 허영자 사모님, 조수현 사모님의 노래는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일일이 호명할 때 서로 손인사 하시고 어색해서 안 따라 하시면 어쩌나 했던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인사는 제가 깜짝 놀라게 너무 잘 해 주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느껴졌습니다. A.P.T 춤을 추며 이어진 Dance시간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즐긴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동문들의 춤 솜씨가 아주 일품이셨고 특히 박재준 후배님의 마가리나 춤 인도는 너무 신났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부른 노래처럼 “참으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이었습”을 깨달은 시간이었죠. 어느 선배님이 “많이 즐거워서 아쉬움의 여운을 갖고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탁월한 연주력으로 모두에게 천상의 하모니를 선사해 주신 L’abri Trio, 꼬옥 적합한 멋진 음악으로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함께 사회를 담당하며 흥을 돋우어 주신 봄 스튜디오 선생님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런 덕담을 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행사를 가 보았지만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전혀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참석하는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요. Photo booth 앞에서 아름답게, Sparkler를 들고 신나게 사진 찍으며 모두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갔었습니다. 멋진 Trio 연주팀과 음향담당자를 섭외해 주신 장기만 사모님, 이무희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 예배의 감동

이번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자를 더 가져와야 할 정도였지요. 운영섭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두가 은혜로 충만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은혜'가 울려 퍼질 때, 눈시울을 적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특히 마음을 깊이 울린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면 다시 교회를 찾아가야겠어요.”라고 하신 한 선배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회와 반주로 섬겨주신 김영훈 선배님과 장기만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행사의 넉넉한 실속

이번 모임은 재작년 NY과 작년 LA 학회보다 참석인원은 조금 적었지만, 참으로 알찬 모임이었습니다.

애틀랜타 지부의 모든 선생님과 사모님들이 기부금도 많이 내 주셨고 “재정이 남으면, 내년 연회나 동창회의 다른 귀한 일에 쓰면 되지” 하시며 열심히 발로 뛰며 경비를 아껴 주셨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 행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

잊고 지내던 지난 날의 저를 반갑게 만나고, 은혜로 허락하신 지금의 삶을 감사로 나누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앞으로의 삶을 위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셨으리라 믿습니다.

▶ 감사드리고 싶은 이름들

자신만의 색깔로 함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완성시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함께해 주신 모든 동문님과 사모님들

계셔야 할 자리에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오래오래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길, 후배님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 한국에서 오셔서 함께 해 주신 동문님들

먼 길 친구 보러 단숨에 달려오신 선배님들, 바쁘신 중에도 미주 동창회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금기창 의료원장님, 이재범 총동창회장님, 그리고 여러 임직원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깊은 정성이 담긴 선물들도 너무 감동입니다.

3) 함께 한 손길들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과 발이 되어 정성껏 섬겨주셨던 이선혜 총무님과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선물인 가방을 추천하고, 주문하고, 배달까지 맡아 주신 총무님께 사모님들의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다”는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관광 인원이 초과되어 또 다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었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담당해 주신 선생님들, 행사 내내 사진 찍으시느라 엄청 수고하셨을 이무송선생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4) 애틀랜타 동문님/사모님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원해 주시고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섬겨 주신 우리 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팀이었습니다.

박준명 선배님

“건강이 허락치 않아 적극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 하세요” 하시던 대 선배님 든든했습니다. 홍정자 사모님은 행사 중 열심히 사진을 찍어 멋진 동영상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억의 사진첩에 곱게 곱게 간직하겠습니다.

김영훈 선배님

강력한 영성으로 예배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도전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김국순 사모님의 막강한 조력의 힘이 예배 때 옆에 앉아있는 저에게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장명용 선배님

“일은 시키지 말아 그러면 그 대신 기부금은 넉넉” 하셨는 데 토요일 Party 끝내고 늦게까지 맘을 뽀뽀 흘리시면서 다음 날 나누어 줄 도시락 Bag을 열심히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요. 언제나 온화한 모습의 장유순 사모님 늘 분위기를 평안케 만드시며 필요한 일들을 찾아가며 하시는 Peace Maker 이셨습니다.

박희명 선배님

밤 늦게까지 강의 준비하시고 강의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돌아치는 저를 보시고 Special coin 을 주시면서 “이것 갖고 있으면 값이 오를꺼야” 하시면서 보여주신 푸근한 미소. 피곤이 싹 풀렸습니다.

차승만 선배님

무거운 짐들 저에게서 미리받아 집에 가져가시며 “왜 요것밖에 없어요? 집에 갔다 다시 올 수도 있는 데” 하시고, 호텔에 딱 시간 맞추어 갔다 놓으시면서 “혹시라도 일에 지장 있으면 안돼서 약속시간에 갔다 두었다”고 하시던 이영애 사모님 두 분 말씀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김인원 선배님

“더 많이 오면 좋은 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이 허락치 않는데요” 하시면서 안스러워 하시며, 애틀랜타에 이사 오신지 얼마 안 되어 동기들 잘 대접 못할까 열심히 애쓰시던 모습 눈에 선합니다. 선생님 한국 잘 다녀오세요.

이무희 선배님

“오시는 분 들 잘 섬겨드려요. 기부금 더 필요하면 이야기만 해요”라고 하신 말씀이 준비 과정동안 내내 저에게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에 한 분이라도 더 모여서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동기별 저녁식사 지원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헌금 위원을 부탁드리자 “아 그 건 내가 잘 할 수 있지”하시며 환히 웃으시던 이정원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장덕규 선배님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며 최선을 다해 수고해 주신 선배님.. 그 기도와 섬김이 연고전 승리라는 기쁜 소식으로 화답되었다고 믿습니다 (함께 섬겨 주셨던 연세총 동문회장님의 소원이셨거든요). 장기만 사모님도 Trio 섭외, 피아노 반주, 음식 배달 등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김명호 선배님

Auxiliary팀 담당하시며 김공근 사모님과 아름다운 잉꼬부부의 모습을 뽐내주신 선배님. 사모님이 워낙 꼼꼼하시고 철저하셔서 제가 “피아노 전공이시라는 데 이과 전공자가 더 어울리시는 것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며 환히 웃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두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수 선배님

다른 주에 사셔서 잘 참석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 하시며 동기 한 분이라도 더 오게 하고 더 잘 대접하기 위해 마음 써 주시는 모습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선배님 정성에 69년 졸업년도가 가장 많이 참석한 동기년도가 되었다 봅니다.

송남수 선배님

기도로 함께 해 주신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제 눈에는 이번 학회에서 제일 멋쟁이 신사였습니다. 조수현 사모님은 사실 김공근 사모님과 함께 이번 행사 실무팀의 환상적인 삼총사이셨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시는 팔방미인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동문 선배님

가장 중요한 Scientific session을 완벽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최형주 사모님도이에 못지 않게 Parallel session을 멋지게 맡아 주셔서 "부창부수"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박경선 선배님

사랑하는 친구 정성껏 챙기시느라 바쁘셨는데 아 어느새 나타나셔서 멋진 웃음으로 산소같은 활력을 주시는 선배님. 특히 윤영섭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들을 대표해 큰 힘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김상애 후배님

Scientific session을 잘 담당해 주신 너무나 씩씩하고 적극적인 후배님. 더 열심히 동창회를 섬겨야겠다는 신선한 도전을 받았다 했습니다. 특히 내년 동창회 회장님과 동기이신 것 같은데 회장님 손을 한 번 내밀어 보심이 어떠실지요?

윤영섭 후배님

누구보다 바쁜 삶 속에서 강의로, 예배 말씀으로 섬겨주신 목사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시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시는 삶 되시기 기도드립니다. 이미 여러 선배님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도전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김진안 후배님

병원이 바쁘셔서 참석은 못 하셨지만 기부금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남유순 후배님

연락이 제대로 되지 못해 안타깝게 일을 많이 부탁할 수 없었지만 미래의 큰 일꾼을 얻은 기쁨을 준 후배님. 앞으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최두웅 후배님

가장 막내로 시키는 일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며 가장 중요한 실무 일을 최선을 다하여 담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여 줄 더 많은 귀한 섬김을 기대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면 언제나 드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돌아보니 저의 이 아쉬움마저도 우리 선생님들과 사모님들의 사랑과 열성이 넉넉히 덮어주셨기에 부족함 없었다고 마무리 맺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커져갔다 하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저희들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에서, ‘물 떠온 하인만이 아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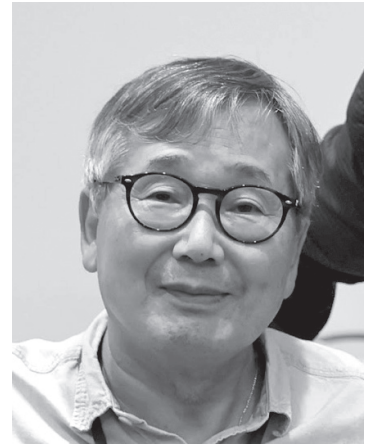
언제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또 절절히 느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감사합니까라는 말씀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음을...”라는 감사의 고백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길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한가위 앞사귀는 아름다웠다
 한 여름 더위에 지친 몸을
 뜨거운 길위에 이제는 말 없이
 누어있는 너의 목소리가 들릴 때
 나는 말라서 복스러진
 너의 섬세한 실핏줄에 다시 흐르는
 새로운 삶을 보고있다
 내가 너를 집어서 아직 푸른 잔디위에
 눕혔을 때 나는 너의 작은 미소를
 기억한다
 언젠가 나도 흙과 함께 있을 때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분의 품으로 나아가며
 너의 미소를 기억하겠지
 오, 주님
 나는 지금도 그 여름 앞사귀를
 어루만지며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길을 걸어갑니다



김계영 (1976) 동문

“미주 SAA 학술과 재상봉 참석하고서”



오병훈 (1976) 동문

제 35회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학술대회 및 재상봉 행사가(The 35th Annual Scientific Meeting and Reunion) 제증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2025년에 미국 조지아주 The Westin Atlanta Gwinnett Hotel에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재미 의대 동문과 가족 등 약 150명이 함께해 세브란스 동문의 화합과 교류의 지평을 열었다. 국내에서도 이재범 총 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최재영 의대학장님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학술대회 및 재상봉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해 본 소감은 첨단의 학문적 성과 공유와 우정을 재확인한 한마디로 세브란스인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거듭 자각한 보람된 자리였다. 무엇보다도 학술대회 및 재상봉 행사는 가을의 높고 푸르른 하늘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조화로웠다.

시작은 박용덕(1976) 북미주 동창회장의 환영사와 공식 환영 리셉션에 이어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학술 프로그램과 투어 프로그램, 골프, 기수별 동창모임(Class Reunion)등 풍성하고도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우선, 학술행사로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탁

월하고 저명한 윤인배, 홍완기 선배님의 Memorial Lecture를 발표해 주신 김계영 동문(1976)의 “Loss, Death and Loneliness in Old Age” 그리고 신동문(1975) 선배님의 “Advancement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ancer Based on the Molecular Characteristics”, 두 분 교수님께서는 존경과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젊은 후배 홍지수 동문(2001)과 김가을 동문(2022)의 “Report from Membership Development and Relations Committee” 발표를 들으면서는 세브란스의 연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값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토요일 저녁에 열린 갈라디너(Gala Dinner) 및 시상식은 다채롭고도 동문들의 돈독한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오랜만에 불러본 합창 세브란스여, 영원하라는 세브란스 교가, 독창 그리운 금강산, 오케스트라의 재즈 연주, 갈라디너의 마지막을 장식한 미주 동창회 박용덕 회장과 원활한 사회 진행에 혼신을 다한 오혜경 동문(1979) 내외분이 주축이 되고 집행부 임원들이 함께한 아파트 노래와 댄스는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갈라디너의 시상식 후 내년도 차기 미주동창회장인 김종태 동문(1982)이 2026년 10월 1일에서 4일까지 개최 예정인 필라델피아 미주동창회를 간략히 소개하는 순서를 가졌으며 28일 오전 8시 예배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로 돌아와 회상해보니, 아직도 감회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지만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두서없이 되새겨보면...

그동안 모교 총동창회를 위해 무려 47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임한 최승희 실장을 Atlanta에 초대한 미주동창회의 따뜻한 배려와 나의 호텔 예약확인 연장 등 바쁜 중에도 번거로움을 마다않고 세심히 챙겨주신 미주 동창회 이선헌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재활의학을 통해 전인적 치료와 환자 사랑을 일깨워주신 이일영 명예교수님 아울러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와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분분투하는 젊은 후배 박재준 동문(2009)과의 만남도 뜻깊었다.

특히 Atlanta까지 먼 길을 함께한 김일영 76동기 회장님 내외분과 인품과 품격을 갖추고 주어진 은사로 봉사를 실천하는 자랑스런 76동기 박용덕 미주동창회장님, 이준호 전 회장님 내외분과 나의 절친 김계영 동기와와의 만남은 벅찬 감회를 불러주었다.

아울러 같은 분야를 전공하는 정신과 송남수 선배님과 심상우 후배와의 만남에 이어 나의 주임교수 시절의 제자 홍지수 선생님과 진한 재회의 기쁨과 젊은 후학들을 위해 그가 노력하는 연결의 발표를 들으면서는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다.

그리고 학창시절 암벽등반(Rock climbing)과 산행의 진수를 가르쳐준 이준호 형님과 문예부 시절부터 함께하고 정신과를 택해 수련하고 세부전공 노인정신의학까지 같은 길을 걸어온 나의 친구 계영을 만나 모

처럼 오랜 시간을 나누며 회포를 풀 것은 잊지 못할 소중한 기회였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다. 미국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은사이신 이호영 명예교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다. 90세의 연세에도 “90세 정신과 의사, 인간과 종교를 말하다”를 저술하시며 후학들에게 자극을 심어주셨던 분이다. 또한 미국 연수 시절과 학회 참석 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권공영, 서창삼 선생님, 모교 교실에서 함께 일했던 김영신 교수님, 그리고 나의 제자 황순조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노인정신의학을 세부전공한 정신과 전문의로서 향후 노인들의 지향점인 Active Aging, 성공적 노년기는 물론 이미 가까이 다가온 AI 시대를 대비한 Digital, SMART Aging의 참된 모델이 먼 곳이 아닌 이곳 Atlanta 미주학회에서 가까워서 뵈는 세브란스를 60년대 졸업하신 80세를 훌쩍 넘는 원로 동문들임을 새롭게 실감하며 선배님들의 노고와 시련, 용기와 인내에서 뿌리내린 체력, 지력, 열정과 헌신에 마음속 깊은 존경과 감사를, 앞으로도 더욱 평강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세브란스인의 사명(Mission)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를 되새기고 내년 서울에서 졸업 50주년 재상봉 재회의 그리움을 간직하며 Atlanta의 아쉬움을 달래본다.

2025년 10월 서울에서 정신과학교실 명예교수 오병훈(1976) 드림



미주동창회에 드리는 감사의 글



최승희 전 총동창회 실장

지난 9월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주동창회(대회장: 박용덕)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여러 도시에서 개최된 동창회와 행사 때마다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셨던 동문들과 사모님들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행사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웃음을 나누던 그 시절의 따뜻한 장면들이 여전히 생생하며, 임원들과 사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7년의 세월 동안 모교 동창회에서 근무하며 참으로 많은 동창들을 만났으며 지난 3월 말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자리를 떠나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훌륭한 원로 동문들께서 보여주신 모교 사랑과 그리고 젊은 동문들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들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을 되새기며, 동문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여정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우리 동문들의 우정과 자긍심, 그리고 모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미주동창회 출장으로 여러 지역의 동문들을 찾아뵙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동창회장님과 총무이사가 함께 방문하였으나,

이후 교수로 재직 중인 총무이사님들의 바쁜 일정으로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미주 각지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사진을 직접 찍고 돌아와 동창회보에 화보와 달력으로 제작했던 일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미주동창회는 약 700여 명의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전 900여 명에 비하면 세월의 흐름을 느낍니다. 지금은 안 계신 현봉학 선생님, 홍준식 선생님, 윤인배 선생님 등 미주동창회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 동문들의 젊은 시절과 지금의 모습을 떠올리면, 세월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70년대 초, 대한의학협회에서 주최한 재미한인의사회 참석차 미주동문들께서 모국을 방문하셨을 때, 모교를 찾으시고 동창회에서는 환영회를 열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25주년 재상봉행사 때는 국내외 동문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여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25주년 재상봉 행사는 동창회에서 주관하고 의료원장실의 후원으로 다과회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50주년 재상봉과 25주년 재상봉 행사 함께 개최하게 되어 재상봉 행사가 의과대학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상봉 미주동문들께서 보여 주신 모교 사랑은 언제나 큰 귀감이 되었으며, 모교를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동창회 사업으로 의과대학 제중학사 신축, 재단법인 광혜장학회의 모체가 된 대여장학금 모금,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된 광혜원 및 알렌관 복원, 세브란스 새 병원 신축 등 굵직한 변화의 순간마다 미주동문들의 참여와 후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이 오늘의 모교와 동창회를 있게 한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다시금 미주동문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깊은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최승희 드림



제35차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연례행사 회계보고 Revenue & Expenditures

Income

Registration Fee	\$14,330.00
Banquet	\$21,000.00
Golf	\$6,240.00
Tour	\$11,800.00
Donation	\$113,460.00
Sunday Offering	\$2,570.00

Total Income \$170,020.00

Net profit \$55,377.85

Expenses

Hotel Banquet & Room	\$58,883.84
Honorarium	\$6,900.00
Donation	\$3,000.00
Gift	\$6,880.17
F&B	\$13,636.03
Golf & Tour	\$15,524.79
Office Expenses	\$4,812.32
Transportation	\$4,385.00
Misc.	\$620.00

Total Expenses \$114,642.15

• 2025년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제35차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연례행사에서는 총 \$55,377.85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박용덕(1976) 회장을 비롯한 애틀랜타 동창회에서는 수익금의 사용처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1. 홍완기 기념강연기금 (Oncology Talk): \$20,000
2. 홍준식 기념강연기금 (Primary Care Issue): \$10,000
3. 세브란스 애틀랜타 지역 동창회 기금: \$15,377.85
4. 세브란스 동창회 본부 지원금: \$10,000

2025 Atlanta 학회 후원금

1959 박준명	\$2,000	1966 장덕규	\$3,000	1990 김진안	\$5,000
1963 김규환	\$500	1966 정환순	\$1,000	1988 이재범 연세의대 동문회장	\$2,000
1963 김영훈	\$2,000	1967 정정택	\$500	1988 금기창 의료원장	\$3,000
1963 박희명	\$10,000	1967 홍미화	\$2,000	연세대학교 애틀랜타 동문회	\$1,000
1963 장명용	\$10,000	1968 전여숙	\$200	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20,000
1964 이봉식	\$3,000	1969 김천수	\$3,000	Morgan Stanley	\$2,000
1964 차승만	\$2,000	1969 박종관	\$160	연세의대 총동문회	토트백
1965 김인원	\$2,000	1969 조원섭	\$1,000	주일헌금	\$2,570
1965 이충영	\$1,000	1970 오홍길	\$3,000		
1965 최병구	\$500	1974 원종만	\$1,000		
1965 허일무	\$100	1975 박경선	\$3,000		
1966 김능수	\$3,000	1975 황선호	\$500		
1966 김명호	\$5,000	1976 오병훈	\$1,000		
1966 배정현	\$1,000	1976 박용덕	\$10,000		
1966 이무희	\$10,000	1976 이준호	\$1,000		
1966 이인애	\$1,000	1984 고봉석	\$500		

사진으로 보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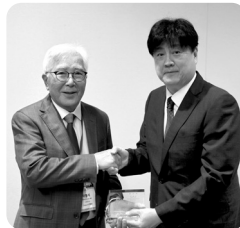
이모저모

제35차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 가장 많이 참석한 졸업년도

졸업년도	동문	배우자 함께
1969	10분	17분
1965	9분	16분
1966	8분	16분
1972	8분	16분



Membership Development and Relations Committee

"멤버십 위원회의 활동 보고 및 2026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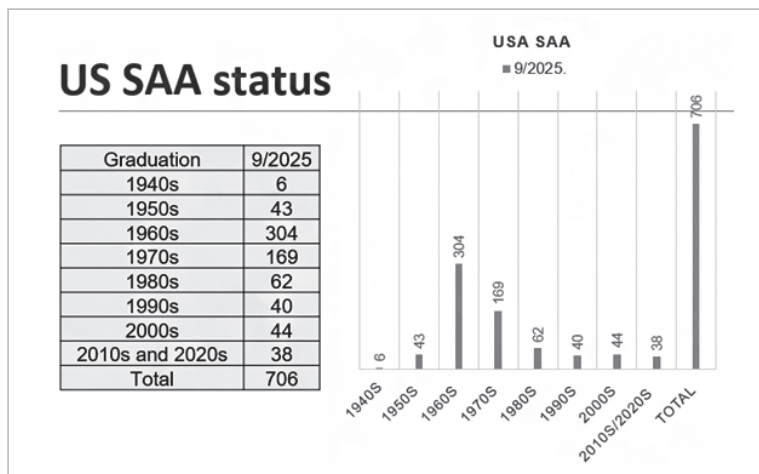
홍지수 (2001) 동문

미주 세브란스 동창회의 Membership Development and Relations Committee에는 김종태 (1982) Chair, 홍지수(2001) Vice-Chair, 윤정수 (2016) Secretary 그리고 총 3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North-East 10명, Mid-Atlantic 4명, South-East 5명, Mid-North 6명, West Coast 5명)

멤버십 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Career Mentoring Program:**
미국에서 레지던시 및 펠로우십 과정을 밟고 있는 후배(멘티)들에게 선배 동문들이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명의 멘티가 수련 중이며, 41명의 멘토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Boot Camp Program:**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residency match 관련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Statistics of US SAA



현재 미주 동창회에는 706 명의 동창이 있습니다. 해마다 전체 동창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졸업한 동창의 숫자는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2000년 이후 졸업한 동창의 숫자는 8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5년도 레지던시 매치를 통해 6명의 후배가 7월에 레지던시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2026년도 레지던시 매치에는 14명이 지원 중에 있고, Membership Development and Relations Committee 산하 Boot Camp Program 을 통해 레지던시 지원에 관한 다각도의 mentoring 을 받고 있습니다.

2. SAA Career Development Grant

여러 동창들의 후원으로 SAA Career Development Grant 가 조성되었고, 현재 약 6만불의 펀드가 모였습니다. Career Development Grant는 현재 레지던시, 펠로우쉽 과정 중에 있는 후배들의 career development 를 돕기 위하여 사용 됩니다. 일인 당 \$3,000 까지 지급 가능하며, 수혜자는 학회 참석, 아카데미 활동을 위한 여행 경비, 논문 발표 경비, 교과서 구입과 specialized course 수강 등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첫 수혜자로, Medical Oncology를 전공할 계획인, 2001년 졸업생 김혜성 선생이 \$1,500 을 받아 Seattle Lung Conference 에서 폐암에 관한 최신 이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SAA CAREER DEVELOPMENT

Grant for Mentees

The Severance Alumni Association USA is proud to introduce the **Career Development Grant**, a financial support program designed to empower mentees who are currently in training programs across the United States. This initiative reflects our commitment to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of Severance alumni as they build meaningful and impactful careers in medicine.

- ✓ selected mentees may receive **up to \$3,000** in funding to support career-building activities. These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 Presenting at academic or professional conferences
- ✓ Publishing research in peer-reviewed journals (e.g., article processing fees)
- ✓ Participating in career-enhancing workshops, courses, or certifications

Eligibility Criteria:

- ✓ Must be an active participant in an SAA mentoring program
- ✓ Must currently be in a training program or research position in the U.S.
- ✓ Proposed activity must clearly contribute to professional or academic development
- ✓ Funding may be used for conference registration, travel/lodging, publication fees, or other related expenses (up to \$3,000 per project)

How to Apply:

- ✓ 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online through the **SAA Career Development Grant Application Portal** on our website.
- ✓ Applicants should be prepared to provide:
 - ✓ A brief personal statement
 - ✓ Description of the activity and its relevance to their career
 - ✓ Estimated budget and funding request
 - ✓ Letter of support from a mentor & the regional chair of SAA
- ✓ Applications will be reviewed on a rolling basis or during set review cycles (TBA). Selected recipients will be notified via email.

3. 2026년 활동 안내

2026년에는 현재 까지 진행해 온 프로그램들을 더욱 알차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 Zoom Homecoming Day 를 열어, 후배들에게 미주 전역에 대한 정보와 향후 long term settlement 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모이는 행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각 전공과 별로 선후배들이 모여, fellowship, first job search 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생유한 (人生有限)



황영환 (1960) 동문

세월이 너무 빨리가... 손자가 엇그제 태어났는데 벌써 두살이야... 며느리는 까만 머리로 시집 왔는데 지금은 반백이 되었어... 등의 화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들리는 이야기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런 화제가 더 예민하게 들리는데 자기의 나이가 한 살 더해지고 사는 날의 수가 줄어가기 때문이다.

생활을 영리하게 꾸려서 인생을 살았다가 늙은이가 되는 것과 그저 일에 얽매어 살다가 나이드 해아릴 시간이 없고 세월만 빨리 간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나의 일평생의 생활은 항상 분주하고 내 자신의 지력과 체력을 생각해 본일 없고,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역시 무관심이 아니라 돌보고 응원해 줄 시간을 못내고 살았다.

어떤 일이 닥치면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집안일이나 직장일, 사회일들이 모두 처음같고 생소하게 생각 될 때가 많다. 그런 일을 두번, 세번 조정하고 처리를 해보려고 노력한다. 물론 나의 꾸준한 성격으로 결국에는 해결되지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더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어릴 때 나의 외조부께서는 나를 칭찬하기로 “일을 끈기 있게 해서 자라면 무슨일 이든 끝까지 처리 할거다.”라 말씀하셨고 책을 읽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곳에 시간을 더 보낼 것이 아니라 한번 더, 두번 더 읽어서 끝끝내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내용을 터득하였다.

생각과 결정하는데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드물다. 두번, 세번 생각하고 결정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때는 상대방에 결정의 뜻을 주었다가 취소해 버리면 오해를 받는 수도 있다. 한 예로 집을 사려고 오랫동안 계획해서 잔금 치루는 날이 다가와도 바로 하루 전에 나는 생각을 더 해보야겠다고 우겼지만, 상대방의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이튿날 당일에 나의 결정대로 안되어 급히 은행에서 용자를 받아 잔금을 치른 일도 있다.

마음과 결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늦게 하며, 세상 물정에 어두운 탓이라고 사람들은 나에게 충고한다. 그 대신 내가 결정한 일에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 없이 매듭 지고 끝을 낸다. 가끔 약속 시간을 어긴다.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끝을 내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서울서 학교 다닐 때 고향에 가는 시외버스 정거장을 가는데 늦어서 몇 번이고 다음 차로 가게 되면 고향에 일찍 갈 것도 밤늦게 가는 일이 허다한 것도 나의 다른 일 집착으로 버스 시간을 놓친 것이다.

나의 이민 초창기에 우리 가족은 작은 도시의 제일 장로교회로 매주 출석했다. 어느날 주일 아침 4시 반에 응급 수술로 병원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

런데 그날은 또한 나의 중요한 날인 내가 집사 세례를 받는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집사 직위를 못 받기도 했다. 비록 후에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때 그 교회의 한 장로는 “닥터항은 너무 일에만 쫓겨 다니다가 졸도해서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편잔을 했다. 듣기 싫었지만 감수하고 그 뒤로는 교회에 시간을 철저히 지켜 나가 예배를 드렸다.

시간과 공간은 일정한데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늙어 간다는 뜻이고 늙은 사람이 더 나이가 많아지면 사는 시간이 짧아 진다는 뜻이고 이런 때를 어떻게 살아야 늙음이 젊어지고 늙음이 더 늙어지는 판가름이 나는 것 같다.

95세 되는 한 노인의 수기를 적어보자.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존경 받았다. 65세때 당당히 은퇴를 했지만 그 이후 30년의 삶을 부끄럽고 후회되는 비통한 삶이었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하고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을 더 살지도 모른다. 다음 10년 그러니까 105세 될 때까지 그동안 하고 싶은 어학 공부를 하겠다.”하며 조용하고 힘있게 말했다.

내 인생도 이 노인의 것과 다를 것 없이 정성껏 열심히 해서 살았지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은퇴한 후에 노인은 30년동안 직장에 열을 쏟으며 계속하지 않았다. 자연의 공간과 제한된 시간에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그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는다.

물론 체질이나 정신적인 입지 조건이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노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30년의 시간이 이 노인에게는 필요했고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은 누구나 짐작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에게는 천직이 있다. 의료업이다. 이를 성취하려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또 졸업 후에도 보내야 한다. 특히 개인 개업을 하던 나에게는 밤낮으로 벽찬 일을 해야 개업을 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활을 거의 병원과 수술방에서 지냈다. 이렇게 한 것은 내 주위의 요구와 일 욕심이 평행했기 때문이고 잔잔한 병 같은 것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그것이 큰 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예방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나의 변명 아닌 변명이다. 이렇게 은퇴 후 25년간을 계속하다 보니 나이는 많고 모든 질병이나 장기의 고장이 한꺼번에 닥쳤다.

그것을 치료하거나 회복을 하려면 젊었을 때와 달리 시간이 걸리고 성공률도 줄어 간다고 한다. 우울과 고독, 수치심, 절망 등 끝없는 자신의 지나간 날의 부조리에 아무 희망없이 살아 간다는 것이 안타깝고 서글프기만 하다.

인생은 유한하다. 인간의 생명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속에서 자신의 계획과 사회의 질서를 따라 살았던 95세의 노인은 은퇴 후 참담한 30년의 허송 생활을 했다고 한탄하지만, 무계획 무질서로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고 근시적으로만 살았던 나의 인생은 더 참담하고 침울하기만 한 듯 하다.



스승과 제자

김유근 (1974) 동문

제가 존경하는 스승들 중 특히 4분이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셨는데 그 중 2분이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박인용 (이비인후과) 선생님과 김영명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십니다. 현재 황의호 (소아외과) 선생님과 김경석 (암 전문의) 선생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제가 암 전문의가 되는데 큰 영향을 주신 분이 김경석 선생님입니다.

두 분 선생님들께서 생존해 계실 때는 그분의 업적과 제자들과의 두터운 관계가 크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는데 막상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 그분들의 은혜가 새삼 느껴집니다. 그 분들이 안 계셨던들 지금의 제가 있었겠습니까?

의과대학 재학 시절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한번은 밤늦게 술 먹고 하숙집에 돌아 왔는데 한 청년이 하숙집 앞에 서서 가로 막고 있길래 비켜달라는데 비켜주질 않아서 어떨결에 보니 껌껌한 중에 하얀게 보여서 주먹으로 한 방 쳤는데, 다음날 그 청년이 부러진 이빨 2개를 들고 친구 한 명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손영완 (정형외과 은퇴) 동문과 같이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한중 (전 총장) 동문과 같이 합의를 하러 갔는데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돈을 요구를 해서 난감했었습니다. 대책이 없었는데 박인용 선생님께서 돈은 꾸어주셔서 배상을 하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뱃기에 면목이 없었는데 이런 문제 학생을 선생님께서는 졸업식이 있던 날 그 바쁜 중에 가운을 입으신채로 의과 대학 정문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같이 찍었던 기념사진을 저는 아직도 제 지갑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저는 미국으로 와서 수련을 받고 개업해서 진료를 하던 중 1993년부터 무료진료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인용 선생님께서 제가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20년전에 내돈을 떼먹고 도망간 놈이 그런 훌륭한 일을 미국에서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세브란스 원장님으로 재직하시던 시절 제가 잠시 모국을 방문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세브란스로 부르셔서 새로 지은 병원을 보여주시고 병원 구내 식당에서 맛있는 짜장면도 사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스승님이 계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도 선생님들께 일년에 두 번 크리스마스 때와 구정 때 꼭 연락을 드리고 안부를 여쭙었습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스승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y home Los Angeles



정영애 (1969) 동문

Perhaps unsurprisingly, I made a cross-country move from New York to Los Angeles in 1978; because of the weather. Summers in New York were humid, sticky and unpleasant. Winters were worse with snowstorms and blizzards, followed by slushy, slippery streets causing car accidents, while people injured themselves and even suffered heart attacks just plowing their driveways. The garbage strike was the last straw for me – the smell of the uncollected trash pushed me beyond my limits!

Coincidentally, this happened to be around the time my parents were considering, moving to the U.S. semi-permanently. They were entering the twilight of their lives and hoped to live closer to their kids and grandkids in the U.S. I knew they had enjoyed visiting New York, but had no intention of living there longterm. Again, mainly because of the weather.

This city was founded by Spanish as a part of their colonization of the New World. At first, a group of soldiers, Missionary priests and eleven familits took the journey from Mexico and established “The town of our Lady, the Queen of Angels of the Little Portion”

It changed the hands of governing, way of life a few times; from the native Indians- the Gabrielino-Tonga, then the Spaniol, and to Mexico after its independence, then finally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in 1848. And in 1850, California became the 51st state of USA.

My first impression of L.A. was not the “love at the first sight”. To me, the city looked ugly, bare, and flat and did not offer much in the way of culture.

It contrasted with my first visit to New York in 1962, as a Korean representative to VISTA project with an invitation of American Red Cross.

For a 16-year old, having grown-up in a war sticken country Korea, it felt as if I had time-traveled and somehow fell inside an “Alice in Wonderland”-like a storybook.

From my room at the Vanderbilt Hotel, I looked out the window and saw a city packed with skyscrapers. Most shockingly, I could not see the SKY which was not a vast open space that I was used to, in Korea. It was a small opening inbetween those tall giant buildings.- It was both scary and very enticing to my young mind.

Macy’s department store was within walking distance from my hotel. When I walked in, I was awed by the sheer abundance of everything: clothes, cosmetics, and jewelry. A little girl’s dream come true. And the escalator- which was a rarity in Korea in those days and I had never seen such a the long one. I kept on going up and down the escalators, just for the sake of riding.

It didn’t take long for me to fall in love with this amazing city and everything it could offer.

New York provided an endless array of new surprises. - the United Nations, Lincoln Center, Carnegie Hall, Central Park and so much more.

Although I was initially lukewarm toward L.A., the city nevertheless, gradually grew on and became a part of me over the years. Nowadays, I call it my HOME.

But, like any other long-term relationship, there were good days and bad times over the years.

My first heartbreak came with the wild FIRE. It occurred a few months after we moved to a new house in Via Montana, a small community in Burbank, in late 1979. It was the first home we ever owned, and we were so happy and relieved, knowing that we no longer had to move from one rental house to another with three little kids. It was a four bedroom, two-story house with a pleasant view. We would let the parents from either side, come and stay with us after we settled in. But looking back, it was a blessing that none of them were there when the fire broke out.

I heard the news of a wildfire starting in Via Montana Burbank, while I was at work in Van Nuys. I quickly rushed home and saw, the sky over the hill was red as if someone poured a bucketful of red dye over our community. I could see angry yellow flames stretching up from inside the red, while grey-white smoke billowed around them.

Cars packed to overflowing, were already fleeing the area. It reminded me of something I experienced as a child during the Korean War, when I was being carried away on my nanny's back and vaguely knew something serious was happening. This time, I was the adult with three little children; of 4, 6 and 7 years of age under my responsibility and protection. My husband's work was much farther away and I had no time to wait for him. Luckily my children were calm when I got home. I quickly instructed the children to pack their pajamas and toiletries in their backpacks, while I hurriedly grabbed whatever cash, jewelry and silverware, before rushing out.

People in other cars were blasting their horns and cutting in front of me.

Since my childhood, I'd had a weak stomach. Whenever I was extremely nervous, my tummy always got affected. It never failed, my stomach started hurting, I kept on slamming on the brakes.

I was terrified. In this condition, I would get into a car accident with my children inside.

I needed to find a place to safely drop them off, before I moved on.

At that point, a house at the south end of Olive Avenue came into view. I recognized it as where my patients, the Kellys, lived. I had been to their house a few times as their daughter took ice-skate lessons at the same arena with my daughter Katherine. Their house was far enough away to be safe from the fire.

I anxiously knocked on the door and asked if my children could stay with them for a little while until I could calm down and drive more rationally. They took my kids in without reservation, and offered a bedroom. It was a very generous offer considering there were only three bedrooms in that house; I left the kids with their nanny there, while I drove back to my house.

My husband was there when I arrived. We hurriedly hosed the house down, with water including the roof. Thankfully, the water supply wasn't cut off, but the electricity went out while we were packing. But we managed to save more things like our diplomas, the deed to our house and a change of clothes, cosmetics and the toiletries.

We crammed into the one room that the Kellys were able to provide to us. My daughter decided to sleep with their daughter while our two boys slept on a bed in our room. The three adults - my husband, myself and the nanny - sat on the floor until after midnight and caught a few winks of sleep, here and there.

As soon as we heard that the fire was contained, my husband and I decided to go back to our house to assess the situation. There were some burned branches and blown debris in our backyard, but, luckily, the house hadn't caught fire. I was happy to be able to return to our place, even with the smell of smoke lingering in the air. Looking back, it might have been wise to get a thorough inspection before we moved back in, but, ignorance was bliss back then and we did it without; I thought I could open the doors and windows and everything would be fine.

However, it kept lingering in my mind, especially when two of my kids later developed asthma; what

if the smoke exposure at the time of this fire had something to do with it.

But, thankfully, they outgrew it, as they became adults.

Another scary natural disaster I experienced in L.A., was the Northridge EARTHQUAKE.

L.A. lies on the St. Andreas Fault and we had felt tremors from time to time. The first time was when I drove the children to school and I thought one of the tires had blown out. But nothing had happened to the car and other drivers also stopped the car, checked it around and moved on, as if they were used to it.

Northridge quake was however, nothing like what I'd previously experienced. It was devastating, registering 6.7 on the Richter scale.

At the time, we lived in Toluca Lake. After living in a track home for 6 years, we were able to finally move to our "dream home": six bedrooms, eight bathrooms, four fireplaces with a pool, a lakefront home with a cedarwood deck extending out over the water. An octagonal wood gazebo on the side of the deck served as a stage for musicians when we were entertaining. My kids, all of them, had school parties there at one time or the other, while they were growing up.

The house, however, was only 15 miles away from the epicenter when the Northridge quake hit in the early hours of January 17, 1994. It was pitch dark and I woke up to a loud shrieking noise. The alarms of the entire city were going off simultaneously. I felt the bed shaking, I knew immediately that this was the real thing, a quake strong enough to cause injury or worse. It felt like something had hit me, but I was dazed and couldn't figure out what was going on. The drapery from our canopy bed had fallen over me and I felt suffocated; it turned out that a dresser next to my bed had fallen on me but its impact had been blunted by the post of the canopy bed, while its drapery fell and covered my face, which in fact saved my life.

I managed to get out from underneath and out of bed. I tried to find a flashlight, but couldn't. Instead I found a candle and matchsticks inside the

drawer of my side table. I was about to light the candle when my husband yelled to me,

"Don't light the candle, what if there's gas leak?"

I didn't smell any gas but decided not to take any chances.

I crawled down the spiral staircase in darkness, and reached the ground floor. Crystal chandelier in the entry foyer had somehow survived, but the dining room had turned to a war zone. The china cabinet had fallen over and all the dishes, glasses and my Lladro collections lay broken and shattered on the floor.

I next noticed a strange sound, which turned out to be a broken pipe above, that was spilling out water, that was flowing down over the surface of the wall, creating a fountain.

The water in the lake continued fluctuating. The natural habitat in the lakebed was destroyed, the rats and possums got wild and ran out of their old home and dashed into my home for shelter. The Hell Broke Loose.

Looking back I am not sure how we survived but we did somehow.

These days, we live in a three bedroom condo near Korea town. We may downsize further one more time. My husband is 81 and I turned 80 two months ago. We are probably looking at the last decade, or even less of our lives and it makes sense to just keep a few things in a smaller space while focusing on what's really important: spending time with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visiting the remaining places we haven't been to, yet still would like to see.

But we will always come home to Los Angeles California.





세브란스 재단, 변화 속에서도 이어지는 미주 동창회의 모교 사랑

김천수 (1969) 동문

북미주에 있는 세브란스 동창회 멤버는 한국내 연세대학교 의대동창회와는 다르게 매년 회원수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젊은 동창들의 미국 이민이 어려워지고 이곳에 계신 연로하신 동창들은 자연의 섭리에 피할 수 없어 저희 동창회는 이의 순응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가끔 미주 동창들의 소천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미주 동창의 회원수는 줄어들어도 미주 세브란스 동창회의 앞날은 결코 암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시절 미국에 오신 세브란스 동창들의 모교 사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고생하며 자란 자식이 부모 생각과 효도를 더 많이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연세 의료원 소식지를 통해 1960년대 가난 했던 시절 미국으로 건너와 많은 고생을 하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있는 우리 선배들께서 이제 모교를 위해 많은 후원금을 보내 주고 있다는 보도를 늘 접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고 김태홍 선배님(1960)과 부인 김정희 선배님(1960)께서 300만불 넘는 후원금을 의대 신축기금으로 기부 하시며 신축건물 안에 예배를 볼 수 있는 채플을 희사 하시고 두분의 이름 한자씩을 따 “태정채플”라고 이름으로 명명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태정 채플에서 우리 연세 의대 후배 학생들이 기독교 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여 도와 주신 고 김태홍, 김정희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everance Foundation Investment Committee는 미주 동창회 재정 위원회 내 Committee로 존재 하면서 Severance Foundation에 기부하신 분들의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에 하나입니다. Committee member는 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내 여섯 개 지역에서 한명씩 참여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세브란스 재단으로 들어온 기부 자금은 절대적으로 기부하신 분들의 기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명

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Financial Committee Chair, Treasurer 그리고 Severance Foundation Investment Committee Chair의 협조 하에 이루어 지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금의 사용 목적은 IRS 501(c)3 code내에서 인정 하는 분야에만 국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특정 임상과, 기초학교실의 보조금, 연구 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모교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의과대학 신축 지원금일 경우는 time limit을 명시 할 경우 세브란스 재단에서 자금을 늘려 3년 혹은 4년 후에 모교에 보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Severance Alumni Association의 자금 지원도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Severance Foundation Investment Committee Chair와 Committee member들에게는 Financial compensation이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Severance Foundation account는 Vanguard에 설정 되어 있고 지난 7년 동안 연평균 15.7%(as of 10/31/2025)의 투자 이익이 있었습니다. 금년 2월, 연세 의대 학생 10명에게 1년간의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4 명의 학생에게 1년 전액 장학금을 보낼 예정입니다. 장학금은 기부자의 이름과 졸업년도를 명시 하여 본교로 보냅니다. 참고로 아래에 Endowment Spending Policy를 첨부 했습니다.

장차 저희 세대는 가더라도 젊은 후배님들께서 세브란스 재단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우리 모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위한 행진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수, Class of 1969

Chair, Severance Foundation Investment Committee

Members of Severance Foundation Investment Committee:

이용해 (1961)
 이배웅 (1962)
 이봉식 (1964) Chair, Financial Committee of SAA
 정정택 (1967)
 홍승국 (1968)
 박창조 (1969) Treasurer of SAA
 윤영주 (1972)
 정 봉 (1973)
 곽영희 (1984)
 김천수 (1969) Chair, Severance Foundation Investment Committee

.....

Severance Foundation Endowment Spending Policy는 아래와 같습니다.

1) The endowment fund will grow through financial investments in the Vanguard account. Each January, annual investment earnings will be assessed based upon the previous 12 months' investment returns. About 5 % of the annual investment earnings will be set aside as miscellaneous funds for the future use of charitable work in the USA. For example, if \$100,000 in endowment funds have grown by 10% (to \$110,000), the annual investment earnings would be \$9,500, and \$500 would be allocated to miscellaneous fund.

2) If the donor earmarked the fund as a scholarship fund, 65% of annual investment earnings will be awarded to YUCM, and the remainder (35%) of annual investment earnings will be saved for the endowment. Using the above scenario, if annual investment earnings were \$10,000, then \$6,500 would be awarded, and \$3,500 would be saved. The endowment fund would grow to \$103,500. In this way, it avoids a meaningful reduction to the real (inflation-adjusted) value of the corpus of the asset pool.

3) If the donor earmarked the fund as other than scholarship fund, SFIC will honor the donor's wishes in distribution of fund to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4) Donations to the alma mater would occur in February each year. This timing will align with the academic school year (March to February).

5) A donor to the endowment may designate their donation as a "Named Scholarship", to be awarded each year to a deserving YUCM medical student. This scholarship will carry the donor's name in "perpetuity." For example, if John Smith from the Class of 1970 designates a Named Scholarship, it would be called the "John Smith Scholarship, Class of 1970."

a) The donor may choose an alternative name for the scholarship if they wish.

b) Each year, the donor or a designated family member will be notified of which medical student(s) have been awarded their Named Scholarship.

c) The minimum donation to create a Named Scholarship is \$50,000.

Severance Alumni Association is registered as a 501(c)(3) organization and the Severance Foundation is a subcommittee under the SAA. Anyone who wishes to make a donation to the Severance Foundation is encouraged to contact the SAA or send a check payable to 'Severance Foundation' to the SAA. All contributions are tax-deductible.



동창회 소식

김인국 동문(1962) 저서 「나의 의료선교 20년」 전자책 무료 공개



김인국 동문(1962)의 저서 "나의 의료선교 20년"이 전자책으로 출간되어 무료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김인국 동문의 지난 20년간의 의료 선교 경험을 담아낸 귀한 기록으로, 이미 작년에 인쇄본으로 접한 여러 동문들로부터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전자책으로 발간됨으로써 동창들이 보다 손쉽게 읽고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며, 좋은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영감과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한 경험과 신앙의 여정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김인국 동문께 감사드립니다.

전자책 보기 :

<https://online.fliphtml5.com/lrjks/ftye/#p=1>

제 30 회 연세의학대상

봉사부문 수상자

故 김 홍 기 (의대 64년卒)



□ 학력 및 경력사항

- 1964 연세대학교 의학 학사
- 1974-1995 Annapolis and Beyer Memorial Hospitals 방사선학과 교수
- 1982-1983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of Detroit 회장
- 1984-2005 Korean American Community Housing Services 회장
- 1985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Michigan 회장
- 1989 Michigan Korean Lion's Club 국제회장
- 1997-1998 KMA 회장
- 1997-2004 SE Radiology P.C. , Wayne, Michigan 회장

□ 대표 공적

- 40여년 간 미주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함.
- 한인봉사회 초대 회장, 한인감리교회 창립 장로, 한인의사회 회장 역임 등
- 한인 연장자들을 위한 '태극마을' 설립
- 대한민국 정부 '국민포장' 수상 (1997년)



▶ 부고 ◀

홍철유 (1953 NJ) 8/17/2025
 변겸식 (1957 CT) 1/4/2025
 정주실 (1957 NJ) 9/28/2025
 김상익 (1959 IL) 4/14/2025
 심낙광 (1960 FL) 3/29/2025
 조영춘 (1961 GA) 9/8/2025

이욱자 (1962 VA) 1/24/2025
 전경수 (1962 NY) 9/12/2025
 정갑은 (1962 MO) 10/5/2025
 정학량 (1965 PA) 8/3/2025
 박향 (1983 CA) 10/10/2025

2025 모교 발전기금

기부자명		기부항목명	의과대학 발전기금
\$300,000 & Up			
1960	김정희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350,000
1971	이헌태	세브란스 재단	\$508,000
\$100,000 & Up			
1960	황영환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0
1961	윤경주(Mrs. 윤인배)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0
1965	김인원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0
1965	이승규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0
1966	남송혜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0
1966	이병윤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0
1966	장영진 (Mrs. 장일웅)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0
1966	채만석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0
1967	이인숙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후원금	\$100,000
1969	국정희	세브란스 재단	\$100,000
1972	소아미(Mrs. 소인영)	소신타 박사 장학기금	\$100,044.27
1972	윤영주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후원금	\$100,000
1972	정인국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0
1973	정봉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10,521.90
	J & S Packaging, Inc.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금	\$110,000
\$50,000 & Up			
1962	이배웅	장학기부금	\$54,000
1963	박희명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50,000
1966	서재만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50,000
1969	김천수	세브란스 재단	\$50,000
1970	김장수	연구혁신기금	\$50,000
\$30,000 & Up			
1959	박준명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후원금	\$40,000
1963	김명희	세브란스 재단	\$40,000
1971	최만영	연구혁신기금	\$30,000
1957	변겸식	의대신축기부금 & 병리학후원금	\$30,000
\$10,000 & Up			
1960	황영환	장학기부금	\$18,000
1960	Keith J. Hwang (황영환동창 아드님)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25,000
1963	김규환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
1963	김명희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
1968	최홍열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5,000
1965	강행자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
1966	장덕규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
1975	신동문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0
1976	박용덕	76년 졸업동기 기금	\$10,000
1991	김주희/조정현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20,000

2025 모교 발전기금

기부자명		기부항목명	의과대학 발전기금
\$5,000 & Up			
1966	최정희 (Mrs. 최수길)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5,000
1967	홍미화 (Mrs. 홍완기)	홍석기-홍완기 박사 장학기금	\$9,000
1968	임건부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5,000
1969	노재운	장학기부금	\$9,000
1995	이선아	약리학교실 후원금	\$8,000
	The Chen Foundation Inc.	의료선교기금	\$6,000
\$3,000 & Up			
2002/2004	김준형, 배소영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3,000
\$1,000 & Up			
1961	오성규	연구개발기금	\$1,000
1961	이용해	세브란스 재단	\$2,000
1961	이유경 (Mrs. 이영빈)	이석신 박사기금	\$1,000
1965	허일무	미주젊은동창 발전장학금	\$1,000
1966	최무길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1,000
\$250 & Up			
1961	고영재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500
1972	류지선	세브란스 재단	\$500
1991	김주희	장학기부금	\$250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 후원자 특별 예우 안내

연세의료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세의료원은 모교에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1억원 이상 후원하신 동창께서는
건강검진 할인 또는 **모국 방문 시 숙소 제공**을 예우합니다.

검진할인 예우

Voucher

숙소 제공 예우

4성급이상 호텔

Voucher

< 건강검진 및 숙소 이용에 관해서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세의료원 발전기금사무국

전화 82-2-2228-1084~9

메일 fund1885@yuhs.ac

Severance Alumni Association

TEL (516) 655-0088

EMAIL severanceusa1@gmail.com

2025 동창회비

1959	박준명	1963	박희명	1966	정환순	1970	오세명	1977	김무광
1959	이창복	1963	이규덕	1966	조동욱	1970	유득기	1977	정진호
1959	이후택	1963	이재경	1966	최무길	1971	강신석	1979	박훈재
1959	조규진	1963	이중인	1966	홍덕언	1971	김은혁	1979	이문희
1960	김문현	1963	장명용	1967	김덕진	1971	안효승	1979	정광호
1960	변희중	1964	김순복	1967	김태원	1971	유영우	1981	심상우
1960	이영환	1964	김정균	1967	방계현	1972	김성철	1982	김상애
1960	이회영	1964	박세관	1967	박기정	1972	김수룡	1982	김종태
1961	고영재	1964	신기덕	1967	송서강	1972	김원동	1982	김효환
1961	김영경	1964	이봉식	1967	정정택	1972	류지선	1982	박주영
1961	김영주	1965	김두태	1968	고정길	1972	설의철	1983	최달
1961	박영자	1965	김병훈	1968	전여숙	1972	성이현	1984	고봉석
1961	송성인	1965	김인원	1968	지원흙	1972	안상선	1989	윤영섭
1961	신원식	1965	박문수	1968	최경희	1972	안홍찬	1990	이승태
1961	오성규	1965	이성환	1968	윤희진	1972	윤영주	1991	김주희
1961	이용해	1965	이웅	1968	함지호	1972	이진방	1991	조정현
1961	이유경	1965	이창근	1968	홍승국	1972	임선행	1998	맹호영
(Mrs. 이영빈)		1965	이충영	1969	국경희	1972	전윤택	2000	이중민
1961	이응민	1965	조신근	1969	권영애	1973	송남수	2001	김대현
1961	지금호	1965	조은숙	1969	김천수	1973	서정주	2001	정혜진
1962	김인국	1965	최병구	1969	노명재	1973	정봉	2001	홍지수
1962	김영록	1965	허일무	1969	박종관	1974	김영희	2002	김준형
1962	민장현	1966	김능수	1969	박준만	1974	원종만	2004	박찬왕
1962	백근실	1966	김명호	1969	박창조	1974	유순혜	2005	남유선
1962	여명구	1966	김윤	1969	연규호	1974	조동식	2007	이창호
1962	이상태	1966	남기일	1969	이성일	1975	박경선	2009	박재준
1962	이원재	1966	남송혜	1969	이원규	1975	신동문	2013	이주섭
1962	전경수	1966	배정현	1969	정근삼	1975	황선호	2018	최두웅
1962	차진석	1966	이무희	1969	조원섭	1976	김계영	2020	황지민
1963	김규환	1966	이병윤	1970	김경식	1976	박용덕		
1963	김명희	1966	이인애	1970	김영숙	1976	오병훈		
1963	김한숙	1966	장덕규	1970	김장수	1976	이준호		

2024 동창회비

1961	오성규	1964	김순복
1963	김명희	2000	이중민

2025 이사회비

1959	이창복	1969	김천수
1960	이영환	1969	노명재
1961	고영재	1970	유득기
1961	이용해	1973	정봉
1966	남송혜	1975	황선호
1966	조동욱	1982	김상애
1968	홍승국		

2026 동창회비

1961	신원식	1970	김경식
1961	오성규	1970	오세명
1965	허일무		

2025 미주 동창회 운영비

1959	이창복	\$100	1966	이병윤	\$300	1972	성이현	\$350
1960	변희중	\$100	1966	조동욱	\$100	1973	서정주	\$350
1960	이영환	\$500	1967	김덕진	\$550	1974	김영희	\$1,000
1960	이회영	\$100	1968	윤향진	\$1,000	1977	김무광	\$1,000
1961	고영재	\$100	1968	최경희	\$100	1979	박훈재	\$800
1961	이용해	\$600	1968	함지호	\$350	1979	이문희	\$1,000
1962	민장현	\$100	1969	김천수	\$300	2001	김대현	\$350
1963	이재경	\$200	1970	유득기	\$300	2001	정혜진	\$350
1965	김인원	\$200	1972	김수룡	\$1,000			
1965	조은숙	\$100	1972	설의철	\$350			

2025 미주 동창회 후원금

1960	이영환	\$500	1970	오세명	\$300
1966	남기일	\$1,000	1970	유득기	\$300
1966	서재만	\$3,000	1971	강신석	\$4,850
1966	조동욱	\$500	1973	정봉	\$150
1969	이원규	\$200			

2025 Membership Committee

1961/1967	김영주/송서강	\$3,000
1969	박창조	\$10,000
1982	김종태	\$3,000
2001	홍지수	\$200

2025 미주 젊은동창 발전장학금

1965	허일무	\$1,000	1970	오세명	\$250
------	-----	---------	------	-----	-------

2025년/2026년 미주 동창회비 납부서

Name : (Korean)	(English)	Year of Graduation :
Address (If changed) :		2025 동창회비
		\$150.00
		2026 동창회비
		\$150.00
전공 :		이사회비
		\$200.00
Phone : (Home)	(Cell Phone)	Greater NY Area Members Dues
		\$50.00
E-mail :		동창회 운영비
		기부금
		TOTAL

* Please make the check payable to **SAA**
 Mail to : **Severance Alumni Association**
26 Wimbledon Dr. Roslyn, NY 11576 | 516.655.0088 / E-mail: severanceusa1@gmail.com